

비즈니스 개시핀



CKP 회계법인 샌디에이고 사무실의 주인공들. 왼쪽부터 유승훈 CPA, 다니엘 리 씨, 소냐 김 씨, 황석중 씨, 제이 한 CPA, 나디아 가부또 씨, 김훈 CPA, 김영진 CPA

## 덩치 키우고 공격적 마케팅 나서

### CKP 회계법인

지난 4월1일부터 새롭게 시작한 'Choi, Kim & Park, LLP' (이하 CKP 회계법인)은 이름만 낯설 뿐 면면이 이미 10년이상 San Diego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매우 낯익은 인물들로 구성된 전문 회계법인이다.

미국에 있는 한국계 회계법인으로서는 규모가 가장 컸던 'Kim & Lee 회계법인'에서 LA의 일부 조직, 그리고 샌디에이고와 새너제이 사무실이 분리돼 새로 CKP 회계법인을 설립하고 두달전부터 다시 시작한

것. 즉 마치 새내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CKP는 십 수년간 회계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공인회계사와 전문가들로 만들어진 회계법인인 것이다.

특히 CKP 회계법인은 최근 세계 6대 회계법인 중 하나이자 미국에선 5대 회계법인에 속하는 'RSM McGladrey'의 회원사로 가입, 그 거대 조직을 등에 업고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었다.

바로 '더욱 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'다. CKP 샌디에이고 사무실은 김훈, 김영진, 유승훈 공인회계사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펼치고

있는데 '새로운 서비스의 세계로 고객 여러분들을 초대한다'는 거창한(?) 각오를 다지고 있다.

이 회계법인은 전통적인 회계와 텍스서비스, 마킬라도라,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 이외에도 이전가격, (Transfer Pricing), Cost Segregation, Sarbanes-Oxley Service, Nexus Review 등 특수 서비스도 하고 있다.

주소: 7675 Dagget Street, Suite 360, San Diego, CA 92111

전화: (858)560-5200/웹사이트: [www.ckpcpas.com](http://www.ckpcpas.com)

다

과 2004년 1월1일

러)	증감(%)
01	22.5%
11	28.8%
23	22.2%
56	16.8%
77	19.8%
89	23.0%
11	20.9%
02	23.1%
31	20.3%
75	22.0%
43	24.8%
48	21.7%
44	21.4%
67	23.0%
77	22.4%
92	24.4%
66	30.4%
52	24.6%
01	20.9%

비독립지역은 조사됐다.

주영성 기자

주요도로

노면 불량

카운티내 주요 하이웨이와 간선 도로 절반 이상